



# 부산일보



1946년 9월 10일 창간 전화 051-461-4114

내일날씨 부산 24~29도 경남 23~25도

www.busanilbo.com

1·3판 1·4판 1번 3판 제 18909호  
2005년 7월 21일 목요일 (음력 6월 16일)

## • 폭염 녹이는 논술 교사연수

“체계적인 논술지도 못해 학생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가르치던 교서도 없는데 논술을 당장 내년부터 정규교과과목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20일 오후 부산 사상구 동서대학교 4층 첨단강의실, 십시 30도를 넘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은 초빙강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20일 동서대 뉴클레나리움 첨단강의실에서 열린 2005년도 부산시교육청 중등교사 논술 및 구성성충현전 지도 자과장 직무연수에서 열린 교사와 교사들이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있다. 강사진기자 김수@

### “논술지도 ‘마음의 빛’ 달고 싶어요…”

## 선생님들의 특별한 ‘보충수업’

이들은 부산시교육청이 개설한 ‘논술 및 구성성충현전 지도자과장 직무연수’에 참석한 일선 교사로 교육.

연수에는 학교에 할당까지 해가며 정원을 채우기에 급급했으나 올해는 60명 정원에 180명이 넘는 교사들이 지원했다. 탈락한 일부 교사는 아예 ‘정강생’으로 나서 이날도 80여명의 교사들이 강의실을 뒤흔들어 매었다.

▲마음의 빛을 달고 싶다-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은 체계적인 논술지도 못해 학생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부산 동서고 조성배 교사는 “외부강사가 학교에서 논술지도할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마음의 빛을 달고 있었다”며 연수신청 동기를 설명했다.

동천고 정영희 교사는 “논술을 가르치면서도 과연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볼 때가 많았다”고 했고 성모여고 이대준 교사는 “일선 교사들은 체계적인 논술연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교육 논술강화 가능하다-강의를 맡은 한효석 전 부천고 교사는 20년 넘게 논술지도를 해

### 부산지역 80여명 수강 열기

### 강사 초빙 ‘실전’ 교육

### “즉흥적 정책이 불신 키워”

은 배태량, 그는 “논술지도는 창작이나 소설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이 틀을 정해놓은 논술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면 학생들이 힘들어지는 만큼 일선 교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논술지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씨는 이날 신문검립과 독자투고 등의 예시문을 통한 중심문장 찾기, 논리 전개 및 확장 과정 등을 풍부한 자료와 생활 사례들과 연관시켜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교수법을 선보여 교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부산이고 강숙희 교사는 “논술지도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다양한 교수방식을 접할 수 있어 매

우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논술연수 대한 시급-교사들은 현장에서 수요가 높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논술연수 기회가 보다 확대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남고 이재근 교사는 “한 학교에 한 사람의 논술연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강사지원단을 일선 학교에 파견하거나 인근 학교들을 하나로 묶어 팀 단위의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 정책 손쓰러도-“논술을 내년부터 정규교과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겠다”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 교사는 “사립대학에 논술 교과과정 하나 개설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교과과목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이처럼 즉흥적으로 정책을 쏟아내니 교육부가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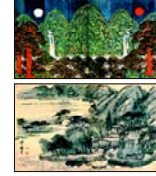
또 다른 교사는 “가르칠 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교육부의 땀 지워방식 대책을 비판했다.

노정현기자 jhno@busanilbo.com

## 새 만원·천원권

### ‘기본도안’ 확정

### 2007년 상반기 발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1일 현대 위조방지 장치를 새로 적용하고 규격을 축소한 새 1만원권과 1천원권을 2007년 상반기 중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새 5천원권은 2006년 상반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지난 6월 9일 의결한 바 있다.

새 1천원권에는 요판양상과 평가 변형인크 등을 신규 적용하지만 홀로그램의 적용은 생략하기로 했다.

관심을 끌었던 도안의 경우 새 1만원권의 앞면 도안초상 인물은 세종대왕을 그대로 유지하나 앞면 부채는 일월오봉도(사진 위와 용비어천가, 뒷면 주제는 훈천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앞면 및 뒷면 바탕그림으로는 각각 전통무늬인 창호 및 조선시대 천문도를 사용하기로 했다.

새 1천원권의 앞면 도안초상 인물은 퇴계 이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앞면 부채는 매화와 병란도를, 뒷면 주제는 경계 정선의 계상정거도(사진 아래)를 사용하기로 했다.

앞면 및 뒷면 바탕그림으로는 각각 전통무늬인 창호 및 퇴계의 천명신도 들 도안하기로 했다.

이정희기자 jihp@

### 오늘의 지면

### 박물관 바깥

▶ 33~35면



up 부산 해수욕장 ▶ 6면

아파트 구입 포인트 ▶ 16면

## 입력

### 제4회 부산바다하프마라톤

1만 2천명

선착순 접수중

부산일보사는 오는 10월 2일 부산의 대표 상징물인 광안대교에서 2005 APB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제4회 부산바다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바다 위의 환상적인 코스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부산시민과 마라톤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전격 최고인 마라톤대회로 자리잡았습니.

이 대회는 올해에도 하프, 10km, 5km 코스 3개 부문에 걸쳐 열립니다. 참가 인원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1만2천명으로 제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가신청은 부산일보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가을 바다를 인고 달리게 될 이번 대회에 많은 선원과 참여 바랍니다.



▲대회일시=2005년 10월 2일(일) 오전 9시

▲집결장소=해운대 올림픽공원 광장

▲참가부문 및 코스

• 하프-올림픽공원~동백선~광안대교 상충부~동명정보대 앞(반환)

~광안대교 하충부~올림픽공원

• 10km-광안대교 상충부~광안대교 하충부~올림픽공원

• 5km-광안대교 상충부~올림픽공원

※ 10km 및 5km 부문은 올림픽공원에 집결, 오전 9시 광안대교 상충부로 이동하여 출발(대회 참가자 외에는 광안대교에 진입할 수 없음)

▲참가인원=부문에 관계없이 선착순 1만2천명

▲참가비=하프 및 10km 3만원, 5km 2만원

▲신청방법=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접수 시 신용카드 결제 제외)에 방문 접수

▲입금계좌=예금주 부산일보

• 하프코스 : 부산은행 027-01-052986-2

• 10km코스 : 부산은행 027-01-052985-4

• 5km코스 : 부산은행 027-01-052984-6

• 단 체 : 부산은행 027-01-052983-8

▲문 의=부산바다하프마라톤대회 사무국 051-461-4046

※ 자세한 사항은 부산일보(<http://www.busanilbo.com>) 및 마라톤 홈페이지(<http://marathon.busanilbo.com>) 참조

주 최=부산광역시·부산일보사

주 관=부산시생활체육협의회·부산육상경기연맹·케이스포츠먼트·부산사회체육센터

주말특선 Week & Joy 포함 오늘 44P 발행합니다

## 괴한 3명, 소총 2정 탈취 도주

### 동해 해안초소…순찰 정병 흥기 찌르고 실탄 뺏아

동해안 해안초소에서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괴한 3명이 순찰 중이던 정병들을 흥기로 찌르고 소총 2정과 실탄 등을 탈취해 달아났다.

▶관련기사 3면

21일 함동항모본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10분경 강원도 동해시 모부대 해안초소 순찰로부터 괴한 3명이 이 부대 초소장 권모 중위와 통신병 이모 상병의 K-1 소총 1정, K-2

소총 1정, 19발들이 탄창 2개, P-96K 무전기 1대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군 당국은 이 지역 일대에 대간첩 침투작전 전개해온 전파계 하나를 발령했으나 대공용의침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강원도 경찰도 1천100여명의 경찰

력을 비상 소집해 강릉 방면 주요 간선로와 영동고속도로 톨게이트 264개소를 임시검문소를 설치했다.

군 당국과 경찰은 21일 오전 1시 20분경 강원도 춘천 경춘국도 강촌정검문소에서 정지시켰으나 서을 방항으로 다시 가버린 흰색 카렌스 차량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다.

노정현기자 jhno@busanilbo.com